

▣ 중국 재정부 등, 알루미늄·구리·태양광·배터리 등의 수출세 환급을 축소·폐지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알루미늄, 구리, 태양광, 배터리 등의 수출세 환급율을 폐지·축소한다고 밝힘.(24.11.15.).¹⁾
 - 공고에 따르면, 이번에 수출세 환급을 폐지하는 품목은 총 59종으로 알루미늄, 구리, 화학적으로 개질된 동식물 또는 미생물성 기름, 지방 등임.
 - 수출세 환급을 13%에서 9%로 축소된 품목은 총 209종으로 구상 흑연, 차량용 휘발유 및 항공유, 태양광, 배터리, 비금속광물 제품 등임.

〈 수출세 환급 폐지·축소 품목 중 일부(2024.12.1.) 〉

구분	품목
폐지	알루미늄, 구리, 화학적으로 개질된 동식물 또는 미생물성 기름, 지방 등
축소	구상흑연(직경 120 μ m), 차량용 휘발유 및 항공유, 항공용 등유, 경유, 실리콘 웨이퍼(>15.24cm), 배터리, 탄소섬유, 콘크리트, 슬레이트, 점토, 석재, 도자기, 유리 등

자료 : 財政部(2024.11.15.), 財政部 國家稅務總局關於調整出口退稅政策的公告

- 중국은 1983년부터 수출세 환급 정책을 시행해 왔음. 2004년부터는 중국이 명확한 산업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수출세를 개정해왔는데, 수출세 환급율을 폐지·인하하여 고오염 제품이나 무역마찰을 빚는 제품의 수출을 주로 제한해왔음.²⁾
 - 이번 조정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는 한편, 중국의 주력 수출제품인 태양광, 배터리 등도 포함하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
 - 그동안 일부 태양광 업계는 수출세 환급 정책에 의존하여 내부적으로 저가 경쟁을 해왔음. 이에 중국은 관련 산업의 고도화와 구조 조정을 서둘러 업계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고 내부 출혈경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정에 태양광 제품을 포함함.
 - ※ 중국은 태양광업계의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연이어 제정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제정한 ‘태양광 제조업 규범 조건(2024년)’과 ‘태양광 제조업 규범 공고 관리 방법(2024)’도 그 일환임.³⁾
 - EU와의 경제·무역 관계를 개선하여 미국과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함도 이번 조정에 태양광, 배터리 등 제품을 포함한 주요 이유 중 하나임.
 - 중국 태양광과 배터리 제품의 최대 수출상대국은 EU임. 태양광과 배터리 수출을 조정하면 EU와의 경제·무역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어 향후 복잡다단한 해외 경제·무역 관계에서 중국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財政部 홈페이지, <https://guangdong.chinatax.gov.cn>, (검색일:24.11.29.)

2) 第壹財經, 24.11.27.

3) 中國經濟網, 24.11.21.